

## 제5강 - 아킬레우스의 재무장과 헤파이스토스

(1교시)

### ◆ 아킬레우스의 재무장과 헤파이스토스

#### ※ 학습목표

다시 전투에 나가는 아킬레우스를 위해 테티스가 한 일과 헤파이스토스에 대해 알아본다.

#### ▲ 테티스의 간청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복수를 맹세하고 헥토르와 대결에 나서려 한다. 그러나 원래 자신의 무장(테티스 여신이 준 헤파이스토스의 투구와 갑옷, 포세이돈의 예언을 가진 말 크산토스)은 파트로클로스가 빌려 나갔다가 헥토르에게 빼앗긴 상태다. 아킬레우스가 아무런 무장도 없는 평상복 상태로 전장으로 뛰어들려고 하자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가로막고 나선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한 후 테티스 여신은 올림포스 신궁으로 간다.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와 관련해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다. 중앙에 앉아있는 위풍당당한 신은 제우스다. 곱슬머리 수염과 가장 큰 홀이 제우스를 상징한다. 제우스의 무릎에 앉아 간청하는 것은 테티스이다.

이 그림의 해석은 두 가지다.

아킬레우스가 첫 번째 분노를 느꼈을 때, 테티스 여신이 제우스에 가서 아킬레스가 참전하지 않는 동안 그리스 연합군에게 치절한 패배를 안겨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킬레우스가 그리스 연합군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아킬레우스에게 내려진 신탁을 거두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해석의 공통점은 테티스가 아들 아킬레우스에 대한 사랑으로 간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우스는 한 번도 인간에 내려진 신탁을 거둔 적이 없다.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 테티스의 신탁을 제우스가 받아들인 것이다. 제우스가 테티스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은 인간과의 결혼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설명에 따르면 제우스신은 미안함이 있음에도 신탁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테티스 여신은 제우스에게 간청한 후,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아킬레우스가 입게 될 새로운 투구와 갑옷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헤파이스토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한사람의 인간을 위해서 갑옷을 만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러나 헤파이스토스는 테티스 여신의 부탁을 받아들여 아킬레우스라는 인간 영웅이 입게 될 맞춤갑옷을 손수 제작해준다.

#### ▲ 추남신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세 가지 전승①

##### - 절름발이 추남 헤파이스토스

모든 그리스 남신들은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이 모시는 신들을 묘사할 때 자신의 시대에 가장 최상인 것들로 묘사했다. 신들이 금발과 곱슬머리로 주로 묘사되는 것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이 우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화적 양상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 남신들은 모두 잘생겼으며 그 중에서도 잘 생긴 사람을 꼽으라면 아폴론이다. 모든 여신들도 아름다웠다. 그 중에서도 미모가 더 뛰어난 여신을 고르라면 파리스의 심판과 관련된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헤파이스토스는 모든 그리스 신을 다 통틀어서 가장 외모가 떨어졌다. 그는 한쪽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절름발이였다. (외모적 특징 때문에 아프로디테와 혼인) 이 추남신 헤파이스토스에 대해서는 세 가

지 전승이 있다.

- 가장 올바르지 않은 전승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신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불길 옆에서 작업을 한다. 불길 옆에서 비스듬히 서서 작업하고 풀무질을 하다 보니 한쪽 얼굴만 일그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리스 신들로부터 신성을 제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당당한 12주신이 불 옆에서 작업했다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풀무질을 했다고 절름발이가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신은 무소불위, 전지전능이다. 이런 일은 헤파이스토스뿐만 아니라 신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x> 병색이 완전한 디오니소스 - 신이므로 병들지 않음)

## 제5강 - 아킬레우스의 재무장과 헤파이스토스

(2교시)

### ◆ 헤파이스토스의 대한 세 가지 전승

#### ※ 학습목표

헤파이스토스에 관련된 세 가지 전승과 가장 타당한 전승, 그가 아킬레우스에게 무장을 만들어준 이유를 알아본다.

#### ▲ 추남신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세 가지 전승②

##### - 호메로스의 전승

헤파이스토스는 처녀생식으로 태어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제우스의 모든 배다른 자식 즉 헤라와의 사랑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 태어난다. 하늘에서는 헤라여신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헤라여신은 신성한 결혼을 주관하는 여신이자 올림포스의 안주인이다. 그러므로 제우스의 배다른 자식을 헤라의 영역에서 탄생시킬 순 없다. 그래서 제우스의 모든 배다른 자식은 땅에서, 움푹한 동굴이나 풀 한포기 없는 섬에서 탄생한다. 그러나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의 아들이므로 올림포스 신궁에서 당당히 태어나고 헤라에 의해 양육된다. 그러나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헤파이스토스가 자기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 그다지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와 헤라여신사이의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라여신이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일방적으로 제우스가 불리하던 차에 어린 헤파이스토스가 지나가 헤라를 두둔한다. 그러자 화가 난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엉덩이를 걷어차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에서 뱀노스라는 섬으로 떨어진다. 떨어질 때 조금이라도 덜 다치려고 얼굴을 돌려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고 두 다리가 부러진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부목을 한다. 그리스 신화에는 정확하게 신들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다 신들이 사는 공간은 천상이고 인간의 공간은 땅이다. 신들은 불멸이고 인간은 필멸이다. 인간은 땅에서 필멸의 요소를 가진 음식을 취한다. 그러나 신들은 불멸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취한다. 그러면 어떤 부자재, 어떤 재료들만 보더라도 하늘에 있는 것들은 완전하지만 땅에 있는 것들은 불완전하다. 아무리 헤파이스토스가 손재주가 좋았다 하더라도 땅에서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다리를 이어붙였기 때문에 한쪽은 성하게 아물었지만 한쪽은 그렇지 못해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것이 호메로스의 전승이다.

#### ▲ 추남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세 가지 전승③

##### - 헤파이스토스의 전승

플라톤도 호메로스와 공통적으로 헤파이스토스는 처녀생식으로 태어났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추남에 절름발이었다는 것이다. 이 전승에서는 그리스 신화 속의 가장 부장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남편이 동의 없이 처녀생식으로 태어난 존재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헤라는 올림포스의 안주인이자 여신들의 서열1위인 자신이 불완전한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나자마자 바다에 던져버린다. 던져진 헤파이스토스는 테티스여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헤파이스토스는 9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낸다. 9년째 어느 날 올림포스 신궁에서 헤라여신의 생일잔치가 성대하게 열린다. 그날을 맞아 헤파이스토스는 테티스여신의 바다 속 신궁에서 자신의 타고난 손재주로 아름다운 황금 옥좌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헤라에게 익명으로 보낸다.

헤라는 선물로 받은 아름다운 황금 옥좌에 앉는 순간, 손발이 결박된다. 그리고 그 결박을 누구도 풀지 못한다. 제우스는 불벼락으로 풀 수 있지만 그랬다가는 헤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만든 인물을 추적해보니 헤파이스토스였다. 누가 그를 데려올 것인가 회의가 열리고 디오니소스가 선택된다. 디오니소스가 아홉 살 된 헤파이스토스를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데려오고 어머니 헤라와 화해시킨 후 결박을 푼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파이스토스를 12주신으로 인정하게 된다.

#### ▲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가장 타당한 전승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호메로스와 플라톤의 전승 중 플라톤의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전승이라면 앞뒤가 맞아야한다. 그것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의해 결정된다.

테티스 여신은 자신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입힐 옷을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하고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명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입을 투구와 갑옷을 만들어준다. 헤파이스토스가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플라톤의 전승(『에우티프론』 대화)을 따른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9년 동안 보살펴준 여신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으로 충분한 명분이 된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전승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 새롭게 무장하고 전쟁에 뛰어드는 아킬레우스

그렇게 헤파이스토스는 테티스 여신의 부탁을 받아 아킬레우스가 입게 될 새로운 무장을 건네주게 되고 어머니 테티스 여신은 그것을 아킬레우스에게 전한다. 이제 아킬레우스는 새로운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다시 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이번 전쟁의 목적은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다.



아킬레우스와 테티스